



전주농협은 지난 5일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4월 1일자로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원 이사' 12명을 선출했다.

# 균형잡힌 조합원 의견 수렴

전주농협, 조합원 이사 12명 선출... 지역·성별 대표성 강화, 4월 1일부터 임기

전주농협은 지난 5일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4월 1일자로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원 이사' 12명을 선출했다. 지역 및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정수를 지역별 성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할 이후 첫 시행된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표참여도가 높았다. 총 12개(2개 선거구는 여성이사 선출) 선거구에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1개 선거구는 무투표로, 7개 선거구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될 전망이다. 그밖에 4개 선거구는 2차 투표까지 진행해 다득표로 당선을 결정했다. 선거 결과 김형수, 김용갑, 이원일, 박길중, 김대진, 신동선, 조미희, 강천규, 주범홍, 정무성, 김양순, 서금숙(선거구 순) 조합원이 이사로 당선됐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이사회의 구성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각 지역별로 정수를 배분해 보다 균형감 있는 목소리를 수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2명의 여성 이사가 선출됐다"며 "이번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와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 모두가 전주농협 조합원임을 명심하고 전주농협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사)한일경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 日기업 새만금 투자 도모

새만금개발청, 한일경제협회와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5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사)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한일경제인회의, 한·중·일 경제교류포럼 등을 통해 다져온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기업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양 기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 ▲한일 기업 간 협력 및 투자유치 ▲홍보 및 교류행사 상호지원 등이다. /유호상 기자

# 농축협 VIP·법인고객 대상 마케팅 역량 강화

농협생명 전북총국 세무교육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지난 4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관내 농축협 지점장 및 여신·보험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조합원 및 VIP고객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명지전문대 세무회계학과 정성진 교수를 초빙, 종신보험 가입을 통한 법인고객의 효과적인 자금 운용 및 재무설계 방법,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세무 관련 법인영업 절차 등이 핵심내용으로 강조됐다. 이숙 총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현금의 가치는 지



속적으로 낮아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조합원들 중에도 자산운용 및 재무설계 관련 니즈가 많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활용한 조합원 재무설계 및 세무관련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농축협과 조합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올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5일 지역 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상호금융 및 포용적 금융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윤총기 상호금융 상무의 특강, 2021년 상반기 상호금융 추진방향, 디지털금융, 수신, 건전여신과 채권관리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 윤총기 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언택트문화·비대면 거래·디지털금융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비이자의 중대를 통한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이 코로나19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수익구조를 갖춰 최고의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농가주부모임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 순창농협(조합장 선재식), 농가주부모임(회장 박영옥) 회원들과 함께 지난 5일 순창군 인계면 일대 취약계층 7가구에 연탄 2,100장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펼쳤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사)농촌사법법국민운동본부가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 '플럼코트'의 안정적인 열매 맺음 위해 살구 꽃가루 활용 인공지능 준비 철저히

시중 구매·시군 농기센터 꽃가루은행 이용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다른 과수 품종보다 꽃 피는 시기가 빠른 '플럼코트'의 안정적인 열매 맺음을 위해 살구 꽃가루를 활용한 철저한 인공지능 준비를 지난 5일 당부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교잡한 과일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꽃이 피기 때문에 이른 봄 꽃샘추위나 서리 등 저온 피해를 보기 쉽다. 플럼코트 열매 맺음을 위해서는 과수원에 살구 수분수(꽃가루받이 나무)를 30% 정도 섞어 심어 꽃가루 운반 곤충(바와곤충)으로 하여금 자연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분수가 충분치 않거나 날씨가 고르지 못해 곤충 활동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살구 꽃가루로 인공지능을 해주어야 한다. 살구 꽃가루는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꽃가루은행을 이용해 직접 채취할 수 있다. 꽃가루는 과수원 10아르(300평)당 면봉으로 인공지능 하면 약 10g, 화분 교배기를 이용하면 약 40g이 필요하다. 꽃가루 10g을 얻기 위해서는 약 500~600g(약 2500송이)의 꽃이 필요하다.

살구 꽃가루를 채취하기에 알맞은 시기는 꽃이 피기 1~2일 전 꽃봉오리 상태일 때부터 개화 직후 꽃밥이 터지기 전까지다. 꽃봉오리를 채취기로 분쇄한 후, 약 2mm의 체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꽃밥(약통)을 수집해 25도(°C) 상온에 12~24시간 정도 두면 꽃가루가 분리된다. 꽃가루와 증량제의 혼합 비율은 품종마다 다르다. '하모니'와 '심포니'처럼 열매 맺음량이 많은 품종은 꽃가루 1대 증량제 9로 증량제 비율을 높이고, '티파니'처럼 열매 맺음량이 낮은 품종은 꽃가루 1대 증량제 3 비율로 섞어 수분 횡수를 2~3회 정도로 늘린다. 인공지능 시기는 날씨를 고려해 플럼코트의 개화 기간(약 10일)에 낮 최고기온이 17도(°C) 이상 되는 후근하고 바람 없는 날,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꽃가루 채취와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플럼코트 인공지능 기술' 동영상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ESG 경영에 발맞춰 다양한 금융지원 앞장"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기업 현장방문 행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4일 익산시 황등면에 소재한 환경전문기업인 (주)전북엔비텍(대표 김광욱)을 방문, 기업 현장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농협은행의 ESG경영 전환에 발맞춰 도내 환경전문기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전북엔비텍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환경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연매출 447억 규모의 중견 기업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ESG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의 열쇠"라며 "NH농협은행은 ESG 경영에 발맞춰 녹색금융 활성화, 정북형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통합관제센터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는 박지현 사장(가운데).

# 전기안전공사, 코로나19 백신 보관시설 특별점검

박지현 사장 취임 후 첫 일정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코로나19 백신 보관시설인 (주)한국초저온(대표 김진하)을 방문했다. 이날 박 사장은 김진하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함께 시설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조치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지현 사장은 간담회에서 "좋은 배

신이나 치료제가 있어도 제대로 된 보관시설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백신을 공급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안정적 백신공급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저장·접종센터에 대한 전기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반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올해 1기 지식기반 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만 39세 예비창업자 대상 17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혁신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2021년 1기 지식기반 창업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 창업의 문을 여는 20~30대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필수 및 전문과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단계별 과정으로 총 5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 필수과정(10시간)은 창업절차, 비즈니스모델링 등 창업 전반 공통교육, 2단계 전문과정(40시간)은 기업운영에 필수인 마케팅 교육과 1:1 맞춤형 전문 멘토링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2천만원, 2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단계 과정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3명을 선발해 각 400만 원 정도의 초기 창업비를 지원하며, 교육 수료 후 창업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디지털 언택트 분야 전문 지원과 시제품제작 및 홍보마케팅, 시설개선)이 연계·지원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내 만 19~39세 예비창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edu.jbba.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진원 지역협력팀(063-711-2104)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신규고객 대상 '경품가득 이벤트' 6월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고객 경품가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규고객 경품가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후 신규 계좌 기준 월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월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매출대금 매월 50만 원 이상 입금고객, 급여 및 연금 1회 이상 수령 고객,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후 자동이체가 정상인 고객(신용카드 이체분 포함)이 대상이며, 위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이벤트에 자동응모 된다. 전북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또한 새로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 응모가 가능한 이번 이벤트는 7월 중 추첨을 통해 1등 세라핌 안마의자 파우체(1명), 2등 무선 청소기(3명), 3등 모바일 상품권 3만원(30명), 4등 모바일상품권 1만원(2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서부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 나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서남부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저지를 위해 방제사업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해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해 고사율이 높은 병이다. 서부청은 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3월 말까지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집중적인 고사목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내 10개 시·군의 재선충병 감염목 1만7,000여본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2~3월 '불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와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남원=김기우 기자